

# 현대시의 소리와 전통적 울림

박미령(용인대학교 )(문학세계관 5-1)

## I. 들어가며

한국문학사에서 구술문학의 전통은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온 것으로 인간 본연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생명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함축하고 있다. 고대의 시가에서도 문학적이며 음악적인 울조에 의하여 삶의 활력을 가늠하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사랑과 결혼을 위한 서곡으로 “ 선화공주님은 맛동방을 남 몰래...”를 읊조리며 1)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웃음과 결혼의 낭만에 대한 가능성도 꿈꾸며 소리의 힘, 노래의 힘을 즐길 수 있었다. 2)그 옛날부터 인간의 문학적 심서는 낭만적인 현장에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별과 생사를 초월하는 사랑의 결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영혼을 울려주는 각종 이야기의 전개와 음악적 리듬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과 소리의 혼이 어우러져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와 그 전개를 운을 타고 읊조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활력과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문심조룡』의 저자는 하늘과 땅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영혼을 가진 인간 존재라 하면서 ‘인간은 오행의 정화요, 천지의 마음’이라고 하여 정화된 마음과 그 실체의 중요성을 갈파한 바 있다.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표현하고 있는 동양 시학의 출발점이 바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으며, 새롭게 펼쳐질 세기의 작품들 또한 인간의 마음에 근거할 것이다. 3)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으로 오행이 정화됨 자체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문학적 표현으로 갈무리하여 영혼을 감동시키는 울림(resonance)으로써 그 작품 속의 소리의 비전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속하게 하는 요소이다.

오늘날의 디지털문화는 지극히 도시중심적이며 기계중심적인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그 속도와 표현의 방식에 있어 자연 지향의 작품에 대한 거부감까지 갖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된다. 기술문명의 편리한 동작과 운용에 의하여 개개인의 삶과 관계 맺음에 있어 안락함과 효율성 위주로 모든 것이 영위되고 있음에 자연의 소박함과 영원함에서 우리나라는 감동의 여운을 접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근래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3의 통신과 대화에서 헤어날 수 없고 연속적 수송신 관계에서 개인 본연의 생활을 방치한 채 익명의 공허한 대화에 자아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컴퓨터, 게임기, TV 등의 문명의 기기 속에서 무의식적인 담보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

1)김열규,신동욱 편,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P. I. 60~73.,PP. IV. 11~12.

2)Ibid., PP.61~63.

서동이 노래를 택하여 신라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게 되는 이유는 신라인이 노래를 신성시하는 전통을 알고 한 것.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第七 月明師 도술가에서 재인용

3) 김우창, 시의 리듬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 1999, 봄호, P. 204.

게 된다.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시절의 삶을 관조할 수 있었던 여유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먼 곳에서 수용하여 실제 삶은 공소함을 느끼면서도 익명의 대화자에 대한 신비와 호기심 속에 다른 공간의 신기루를 꿈꾸고 있는 타성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적극성이 결여된 채 피동적인 삶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혼을 회복할 수 있는 심적 여유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감동 부재의 시대. 무감각한 영혼의 시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인간 본연의 호소력 있는 대화의 부재, 지속적인 에토스의 구현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의 부재 등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소리의 혼에 의하여 그 치유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의, 원거리의, 무책임한, 방임상태에서의 대화의 소리는 감동이나 신뢰의 경지와는 거리가 있는 순간적인 감정의 과편으로 에토스의 상실과 불신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할수록 보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간접적인 삶의 환경에 간혀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 자연과는 현격하게 다른 의도된 문화의 전달에 의한 수동적인 생활양식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TV화면 등과 같이 각종 대중전달 매체들에 의하여 가공되고 의도적으로 처리된 자연을 수용하게 됨에 실제 삶의 호흡과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편향된 전달에 의한 편견에 의하여 판단력이 결여된 인성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인간 본연의 대화와 소리의 힘에서 나올 수 있는 감동이나 울림의 예술적 삶의 경지는 인간 스스로의 자각과 깨달음의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삶의 지표나 비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신뢰의 실체가 모호하면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타율적인 시야와 잣대로서만 매사를 판단하고 조급한 감정의 표출로 인한 감정의 소모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신원불명의 무책임한 소리매체에 의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강행되는 시대나 사회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밝은 대화를 상실하고 우울한 사회 정서의 흐름이나 개인적 칩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상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옛부터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넘쳐흐르는 심서를 노래로써 표현하다가, 흥에 겨워 몸짓으로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조망하여 그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문명의 공간과 시간을 창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술 장르를 계승의 차원에서 확인하고 강조하며 논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표현의 절정인 아름다운 경지를 자각하게 하는 울림의 근원인 시적 운율 속에 인간의 심서를 풀어주고 일상적 삶 속에 어우러져 있는 문학적 요소와 삶의 예술적 승화의 관계를 조망해야 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시대의 문화 속에 어우러져 인간적 삶의 근원과 시원의 진수를 자각하고 감동의 여울 속에서 일상을 여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정(性情)을 읊어 청화(淸和)를 펴므로써 가슴 속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즉 존양성찰((存養省察)에 일조가 되는 것”<sup>4)</sup>으로 사람과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운율적 힘을 발견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4) 이이, 정언묘선서((精言妙選序), 율곡전서, 권13, 서(序), 김병국, “율곡의 문학관”,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月印, 2000, pp. 225.에서 재인용.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서 가장 정수(精粹)는 말이며, 말 중에서 가장 정수(精粹)는 문사(文辭)이며, 문사(文辭)중에서 가장 정수(精粹)는 詩임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장 정수에 자리잡고 있는 시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정을 읊조리는 시적 행위에 두고 이를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5)일찍이 공자는 시경(詩經)을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율곡은 이 시경(詩經)의 시 세계를 “ 사람의 情<sup>6)</sup>을 다 드러내고 사물의 이치에 두루 통하되 유순하고 참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어야 정을 드러냄에 ‘ 과불급’이 없어 나쁜 데로 흐르지 않게 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천리가 유행하여 그 이치를 즐길 수 있게 되며, 유순하고 참될 수 있는 것이다. 율곡은 바른 성정<sup>7)</sup>을 읊게 되면 ‘ 청화<sup>8)</sup>’를 펴게 되고, ‘ 청화’를 펴게 되면 가슴 속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게 하는 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문화를 영위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 하늘과 땅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영혼을 가진 인간 존재 ”의 역할을 증시하여 작품을 통하여 소리의 혼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전통적인 문학의 혼과 운율적 조화가 어우러져 있음을 정리할 것이다. 그 대상은 소리와 문학의 혼이 공존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당대의 문학적 표현과 전통적 형식을 조화시켜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생활의 활력소로서 무의식적인 암송과 운율적 흥취 속에 반복하여 읊조리게 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 계승의 의의와 문학사적 가치를 규명할 것이다.

## II. 디지털 시대의 시적 전환

### 1) 기록 문자에서 전파매체로의 전환

시적인 것은 말로써 읊고, 그 운율적 흥취를 타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중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조화와 공감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문자에 의한 전달과 개념 정의와 파악하는데 치중해 왔던 시적 전달에 머물지 않고 전통적인 노랫가락과 함께 현장감을 불러일으켜 시적 공감을 일으키게 함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5) 시는 성정(性情)에 근본하니, 속이고 꾸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음(聲音)의 높낮이는 자연에서 나온다. 삼백편은 사람의 정을 다 드러내고(曲塵人情) 사물의 이치에 두루 통하되(旁通物理) 유순하고 참되어(優柔忠厚, 요컨대(精性의) 바른 곳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시의 본원이다.:이이,,정언묘신서, 율곡전서, 김병국, Ibid., p. 227에서 재인용.

6) 情은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발하여 나오는 것이지, 자기로 말미암아 부리는 것이 아니다.:이이, 어록 하, 율곡전서. 情不知不覺自發出來 不教由自家

7) 성정사람의 마음은 성'정'의의 주제, 성(性) 가운데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있고, 칠정은 희로(喜怒)애(哀)(愛)락(樂)애(愛)오(惡)욕(欲)이 있 으니 오상(五常)의 밖에 다른 성(性)이 없고, 칠정의 밖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가운데서 인욕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에서 나온 것이 곧 사단이다

이이, 심성정을 논하다 「『논심성정((論心性情)」 , 『 율곡전서』, 권 40, 잡저1, 32.

김병국, pp.267~268에서 인용.

8) 청화는 인욕이 개재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상태의 과불급이 없는 정. 청화를 펴기 위해서는 성정을 읊조리어 시를 지을 때 꾸밈이 있으면 안 된다. 성정을 읊되 청화를 펴도록 권장하는 것.

이다. 시적 공감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활기있게 전환시켜 나가게 하는 힘을 발휘하며 창의적인 공간과 시간을 영위하게 하는 삶을 지속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의미있는 것은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고 마음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고정된 물품으로서가 아니라 쉬임없이 활기가 흘러넘쳐 우리 모두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작품으로서 그 활기있는 전달 양식인 소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언어의 기능은 〈에르곤〉 〈ERGON,작품〉으로서 보다 〈에네르게이아〉 〈ENERGEIA, 활동〉으로서 보아야<sup>9)</sup>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어느 시대에나 진정 잘된 시에서 적절한 음악의 형식은 발견되어야 한다 ”<sup>10)</sup>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인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 시대를 표징(表徵)하는 음악성, 소리의 구현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III 시대의 소리와 시적 변용

#### 1. 혼의 집중, 소월 김정식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의 「 초혼 」에서

서정시인은 바람과 친구가 되고, 바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시적 자아를 표현한다. 그 삶의 과정과 감동의 여운을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 것이다.<sup>11)</sup> 소월의 「 초혼 」의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을 불러일으키는 “ 소리 ”는 하늘과 땅 사이를 비껴가는 조그만 흔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천지간에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르고 또 부르기를 거듭하는 시적 자아는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을 향

9)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p.176.

10) 김우창, op. cit., p.204.

소월 시의 특이성을 그 음악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시의 내용과 음악성이 적절하게 조화됨을 소월시의 비결이라 지적. 시적 음악, 음악적인 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 James Guetti, " Noncognitive Images," Word=Music,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80, p.36.

시대에 훨씬 유쾌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정경의 설정과 단어의 음악성과 리듬의 선택과 운용에 관심,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첫 번째로 보이는 하얀 벽.../ 과실나무들...”

최동호, 디지털문화와 생태시학, 문학동네,, 2000, PP. 62~66.,

시인들이 음악적 운율을 발견하기가 어려움을 ‘ 힘든 고난의 과정 ’이라고 언급하며 시의 리듬은 시인 개인의 리듬 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근본에 관계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하여 매진하며 시적 혼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sup>12)</sup>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은 무엇일까. 그대로 그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어 서있게 될지라도 부르기를 지속하는 시적 자아의 에토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시적 혼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소멸과 고독의 시대를 살다 간 김소월이 생성과 화합을 열정적으로 찾고, 생성과 화합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에만 사로잡히거나 비탄에 머물지 않고 화합과 생성에 대한 안정된 정서에 이르는데 이는 전통적인 3음보를 변용시켜 만든 형식에 의한 것이다.<sup>14)</sup> 소멸과 단군시대의 한민족의 에토스는 소월이 애타게 원구하던 시적 혼이 가는 길에도 동승하여 그 영원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우리 민족의 에토스는 시인의 섬세한 배려와 유려한 정서, 관조적인 태도, 생명의 질서와 고귀함에 대한 흠숭의 태도와 지조있는 삶에 대한 태도 등이 일관적으로 수용되어 활기찬 가운데 일상적 흥얼거림으로 생활 속에 녹아있음을 보게 한다<sup>16)</sup>.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을 향하여 온 생애를 다 받쳐 매진하던 삶<sup>17)</sup> 그 자체가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 자체여야<sup>18)</sup> 하는 시적 자아의 에토스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시화(詩話)<sup>19)</sup>의 성숙된 경지에서 보면 시풍의 기골과 그 성률을 중시하게 된다. 특히 문학작품이 전승되어 민족의 힘이 되고 거울이 되며 의지와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시의 품격은 엄격하게 그 가치를 논구해야 할 것이다.<sup>20)</sup> 본고에서는 삶에 대한 해안으로 삶을 관조하며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길에 소리의 기운이나 소리의 영험성, 또는 소리의 혼을 믿고 <sup>21)</sup>겸허한 삶의 궤적에 임했던 만해의 발자취

12) 김학동, 한국근대시인연구,일조각,1974, pp. 83~85.

13) 조동일,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p.,28.

전통은 문화유산이 아니고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찾고, 점검하고,정리하는 작업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가운데 전통에 대한 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14) Ibid. , pp. 151~152.

15) 김우창, pp.223~224.

사람이 개체적 존재가 되는 것도 객관적인 것으로의 자기 초월이 없이는 불가능함. 윌리엄 콘돈이 말하는 바와 같이 , 리듬은 개인의 삶에 개체적 정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리듬은 사회에서 , 또 개인의 삶의 근원으로부터 온다.

16) 김억, 시형의 음률과 호흡, 작시론 에서 시의 음악성 강조, 소월이 독자적인 리듬과 독특한 시적 공간을 설정

17) 조동일,, op.,cit.,p.170~171.

18)Ernst Cassirer,p.,238~239.

예술은 전적인 정신 집중을 요구한다. 한갓 유쾌한 감정과 연상의 작회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19) 이규보의 白雲小說 참조.淸警의 세계, 雄豪, 妍麗, 平淡 등이 우러나는 시를 품격이 있는 시라 함.

20) James Guetti,, op. cit.,p.75.

시각에서 청각으로 변용되는 음악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

21)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1997.,pp.48~50.

소리가 같으면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을 보면 소리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게 된다. 청각의 여러 통로, 고막에서 와우관, 뇌의 내측슬상체, 그리고 측두부의 청각중추까지 같은 신경섬유를 통하여 지나가므로 소리가 유사하면 일단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가 2차적으로 대뇌피질에서 그 의미를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음이 동, 사, 귀, 신 등의 발음을 동(東)은 동(動)으로, 사(四)는 사(死)로 , 귀(鬼)는 귀(歸)로,, 신(神)은 신(申)으로 풀이하는 것이나, 음의 부정적인 성향을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언어습관을 엄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리는 중요한 시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생리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다.고막에서 내측슬상체, 대뇌피질에 이르는 동안 같은 신경섬유를 통과하므로 일단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 수용하기 때문이다.

를 통하여 그 전통적 소리의 맥의 근원지를 탐색하여 정리할 것이다.<sup>22)</sup>

## 2, 생명의 소리, 만해 한용운

동양에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삶을 일으키려면 맨 먼저 우주와 인간의 마음의 관계를 다시 살펴서 올려, 즉 음악부터 새롭게 했다 한다. 올려는 ‘동양의 음악을 가리키는데 특히’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양의 음악을 말한다. 율은 양을 여는 음을 12계절 중의 ‘우주 절기의 변화를 표현하는 음악’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한다. 특히 그 음악이 창조적으로 생성의 기운을 새로움을 불러 일으키면 그에 가사를 붙인 시도 창조적이며, 율동으로 읊기면 춤이 곧 창조적인 기운으로 새롭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 살피는 예술, 이것이 올려인데<sup>23)</sup> 이로부터 치유와 도덕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구현하여 그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의 조화가 건강한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sup>24)</sup> 김지하의 주장과 같이 근래에 율리학을 통하여 동양의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정립해 보려는 발언을 볼 수 있다.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통찰하고 새로운 음악, 시, 무용, 연극, 더 나아가 영화나 컴퓨터 게임, 디지털이나 사이버 문화까지도 변화 일로에 속하게 되는 비전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와 인간의 소통은 고래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율리학과 유사한 연구단체를 볼 수 있다.

다문화시대에 이르러 국민정서에 비추어 적합한 미학적인 표현은 첫째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며 둘째로, 서로 사랑하며 화해(和解)의 공간을 설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소통과 사랑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유연한 삶의 개선과 발전의 흐름을 성취하게 됨에 생명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셋째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확립하고<sup>25)</sup> 인간과 우주의 소통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삶을 관조하며 여유를 누리게 하는 생명의 기운은 시적 표현 양식에 나타나는데 이는 곧 생명의 질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유기적 형상 속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삶의 밝음과 어둠, 그리고 빛과 그늘을 조화된 숨결에 의하여 그 생성과 발전, 그리고 전환을 거치며 시적 환영을 남겨주는 작품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존재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작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역동적으로 영위하게 해줌을 볼 수 있다. 그 역동성(dynamism)의 세계에서는 시적 변용과 운동의 시학으로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현실을 자각하며 새로운 현재를 추구하는 삶의 창조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는 곧 음악적 리듬과 이미지의 조화를 유기적 형상 속에 보게 된다.<sup>26)</sup> 만해의 시

22) 조동일, op., cit., p. 28.

올바른 전통론은 우리가 이면적 의식으로 지니고 있는 전통을 표면에 드러내서 정리하고 논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다.

23) 율리律呂에 대해서는 이정호의 정역(正易)과 김지하를 비롯한 율리학회(律呂學會)의 이론과 그 외의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여 시대에 맞는 이론과 실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4) 김지하, “ 흰 그들의 길 , ” 『 미학사상, 』 김지하전집3권, 실천문화사, 2002, pp.276~280.

25) Susanne K. Langer,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93, pp.39~42.

Problems of Arts-Feeling and Form, What is art

26) James Guetti, op.cit. p., 22.

적 氣骨과 聲律<sup>27)</sup>, 그리고 역동적인 이미지의 구현으로 생명력을 환기시켜 주고 있는 시적 전환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에서

만해의 작품중에 절창의 배경은 시적 관념을 운율적으로 처리하여 그 심오한 리듬과 신비로운 문맥의 형성에서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점이다. 소리와 개념을 동시에 수용하여 일상 속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점은 언어의 예술적 운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시적 유희는 삶의 리듬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 스스로 그 음악적 운율을 생활속에 투영해 보며 예술적인 삶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해의 시적 기개는 웅혼하여 우주와 인간의 소통,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대화, 그 속에서 독자적인 삶을 관조의 지평으로 향상시켜 주는 생명력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바람도 없는 공중’이라는 시적 공간은 무한한 침묵 속에 전개되는 우주적 삶의 무한성을 느끼게 한다. 보이지 않는 바람, 만져볼 수 없는 바람, 냄새도 맡아볼 수 없는 바람,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람의 와중에 침묵 속에 전개되는 생명의 시원(始原)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침묵속에 전개되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접하게 되는 장면의 전환을 보게 된다.<sup>28)</sup>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신비한 리듬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을 접하게 되는데 ‘오동잎’의 자연적 형상을 관상하게 하는 동시에 독자의 주관적 편향을 조화시켜 시적 객관의 상통함에 이르게 하는 절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주 속의 지리멸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안간힘만 쓰며 시적 경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공간에서라도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을 접하게 되면 일순간 우주의 심오한 법칙과 생명의 질서의식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객관 상관물로서 떨어지는 ‘오동잎’은 그 전승의 궤도에서 오랜 동안 연마하고 수련해 온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해의 작품 가운데 시적 언어로서 그 전승의 심도를 깊게 하는 ‘오동나무, 오동잎, 소리’ 등은 선조들의 생활 가운데 스며있는 삶의 정갈하고, 성실함, 자연 앞에 진솔한 친화력과 동반의식을 표현하는데 자주 보게

---

언어의 의미 형성과 대중전달에 대한 기능들은 특별하고 기교적인데 편견이 없이 다양한 상황을 참고해야 함.

27) 崔滋의 보한집에서는 시의 품격을 논함에 시를 평하는 네 요소에 기골氣骨, 의격意格, 사어辭語, 성률聲律을 지적하고 있다. 辭語는 표현과 형상을 말하고, 의격意格은 의미 또는 주제를 말하며 그 가운데 기골과 성률에서는 시적 기개와 소리와 운율의 조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협, 聲律, 제 33, 문심조룡, 권 7, 김병국, op.cit., p.71.에서 재인용

자구의 기력은 바른 소리( 절운切韻)가 나는 화(和)운(韻)의 조화의 상태. 화(和)는 다른 음이 서로 따르는 소리. 운(韻)은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하는 것. 바람이 대지에 불면서 내는 소리, 곧 자연의 소리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대숲을 부딪쳐 내는 소리’가 성률에 귀한 것.

28) 조동일, p.147~148.

한용운의 시는 깊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의 길이가 길다. 3음보를 중첩시켜서 6음보 또는 9음보를 만들고 있음.

되는 시어이다.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는 만해의 「찬송」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객관적 상관어로서 청각적 이미지를 구현하여 찬송의 영역을 우주 한 가운데로 퍼져가게 하고 있다. ‘ 옛 오동’에서 오동의 시적 개념은 민족의 삶에 녹아있는 대화 가운데 생명력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동잎의 역동적 움직임은 ‘ 고요히’ 그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역시 찬송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 숨은 소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고요한 가운데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누군가의 흔적은 일상적 삶에서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경지가 될 수 없는가? 우리는 ‘ 누구의 발자취 ’인가를 따르며, 사유하며, 깨닫게 되는 경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탐색하고 노래하며 , 나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를 조망하며 관조하는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시적 경관은 삶의 기개를 심오하면서도 활기 있는 역동성 가운데 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현실적 삶이 “ 창조적 진화”의 양상으로 볼 때 예술의 창조성<sup>29)</sup>은 생명의 창조에 대한 증명과 그 생명의 탄생과 이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과정 자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에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창조는 참으로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움의 실체로 나타난다. 시적 언어의 창조는 작품 자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의 분출, 넘쳐흐름으로 인한 활기의 실체로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 언어는 〈에르곤〉 〈ERGON,작품〉으로서 보다 〈에네르게이아〉 〈 ENERGEIA , 활동〉으로서 보아야 ”<sup>30)</sup>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적 언어는 고정된 기성물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이 곧 시인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개와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이며, 곧 시적 사상을 시어의 운율과 소리의 조화를 통하여 표현한 열매이다. 이는 시인의 끊임없이 되풀이된 고뇌의 결정체로서 고정된 물품으로서가 아니라 작품의 활기가 생활 속에 어우러져 예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단 일한 순간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유기체는 절대로 단일한 순간에 정착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 현재는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를 머금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미래의 유기적 구조 속에 보게 되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각각 독립적인 유기체의 앞에 전개되는 순간적인 상태는 , 그 역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 또한 이 상태가 그저 하나의 통과점이 되어 그곳으로 흘러가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는 기술될 수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생명의 유기

29)Ernst Cassirer,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tr. by Myung Kwan Choi, 인간이란 무엇인가, 展望,17, 1979, , PP.232~234.

30) Ibid.,p.176.



성은 시간의 형상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어떤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시인은 유기적 생명의 조건으로서 그 생명은 시간이 진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적 경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 속에 노래하는 것이다.

“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 노래하는 사명은 생명의 시원에서부터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냇물의 노래를 관조하게 한다. 물의 근원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우리 앞을 흐르고 있는 물의 흐름을 통하여 그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굽이굽이 흐르는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 ‘돌부리’를 넘어서 그를 넘어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르고 흘러 가느다란 음성으로 삶의 과정을 노래하는 시냇물의 소리는 지금도 가늘고 섬세한 소리로 자아를 일깨워주고 각성케 하는 고요 속의 역동적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 다시 똑 같은 물을 만날 수 없듯이 인간의 삶도 두 번 다시 같은 대화도, 향기도, 소리도 접할 수 없다. 이에 순간적 상황의 연속체로서 삶의 흐름에 흘러가야만 하는 자아의 구현의 장을 통찰케 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문학적 상징은 내적 체험의 표현이다 . 예술의 상징은 내재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 초월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다.<sup>31)</sup> 시적 읊조림은 고요 속에 흐르는 시냇물의 대화를 듣고, 앞세에 스쳐가는 바람소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내밀한 신비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성찰의 소리, 운동주

운동주의 「서시」와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리는 시적 영혼을 울려주는 예술적 장치로서 부드럽게 울려오는 운율 속에 녹아있음을 보게 된다. 소리는 독자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비전에서 벗어나 유연함과 섬세한 배려로써 삶의 원을 그리게 하는 힘을 함축한다. 소리는 곧 삶의 힘이다. 특히 우주의 한 가운데 서있는 망부석과 같은 모습의 시적 영혼은 삶에 대한 고유의 비전으로써 소리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주는 것 뿐만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소곤거리는 영혼의 소리, 우주의 적막함과 그 무한한 공간성을 구체적인 소리로 환원시켜 공명의 현상을 일으키며 바람을 타고 울려움을 느끼게 한다.<sup>32)</sup>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운동주, 「서시」에서

“ 앞세에 이는 바람 ”을 들을 수 있는 자아의 성숙은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이로서 그 긍지를 갖고 표명하기 전에 고심하고 원구하게 된다. “ 나는 괴로워했다 ” 그가 괴

31) Ernst Cassirer, op.,cit.,pp.,227~228.

32) Ibid., p.231.

정적(靜的)인 소재로부터 형상의 동적(動的)인 생명을 끌어내는 재능으로 위대함이 결정된다.

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독자는 동참하게 된다. 잎새에 이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지마다 소곤거리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며, 생명의 모든 소리에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경지에서 시적 표현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시적 자아의 성숙은 존재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경지를 타진하고 삶에 대한 외경을 함축하고 세인의 성숙한 영혼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는 동행이 있으므로 삶의 외로움은 소멸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우정의 대화로써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한 시행에 함축되어 있는 생명에 대한 외경, 섬세하고 유려한 마음의 흐름, 성숙한 영혼의 겸허한 자세 등의 우호적인 흐름은 민족의 일상생활에서 에토스적 화신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된다. 잎새에 이는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민족의 에토스는 민족시인의 문학사적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쉽게 씌어진 시(詩)”의 1연에서 10연 가운데 1연에서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에서 그 소리의 근원지가 창밖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8연에서’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라고 하여 공간적 관심과 소리의 근원지와 관계의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통하여 듣고 있는 빗소리의 여운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서 직접 듣게 되는 빗소리와는 다른 경지를 예견케 한다. 자연적인 순리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임하는 정신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민족의 성정은 그 여유로움과 조급함에 비추어 보면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면면함을 상실한 채 즉흥적이며 기교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초래되는 에토스의 초토화는 문학적 풍취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선인들의 언급을 통해 민족의 성정을 도야하는 관문으로 시적 자아의 역할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정의 온유함과 돈후함을 함축하고 있는 시적 운율은 시적 활개와 호연지기로 전환되는 에토스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성정(性情)을 도야(陶冶)하려면 시를 읊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스러우면서 힘있고, 기이하면서 우뚝하고, 웅혼하고, 한가하면서 뜻이 심원하고, 맑으면서 환하고, 거리낌없이 자유로운 기상”<sup>33)</sup>이 나타나는 시적 표현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며 “가늘고 미미하고, 자질구레하고 경박하고 다급한 시”를 경계하고 있음을 볼 때 민족시인의 품격과 그 표현의 절정은 일상인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예술적인 삶의 전환으로 상승시켜 주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4. 삶의 해조(諧調)의 소리, 김영랑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엇모리 잣아지다 휘몰아보아.

33) 정약용저,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1998, pp.,95~96.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  
헛 때리면 만갑(萬甲)이도 숨을 고쳐 쉴 밖에.

장단(長短)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연창(演唱)을 살리는 반주(伴奏)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킁닥타--요.

떠받는 명고(名鼓)인데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떡 궁 ! 동중정(動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김영랑, 「북」 전문

1935년에 간행된 영랑시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영랑의 ‘소리’에 대한 열정이 한 편의 시에 넘쳐흐르고 있다. 예술과 삶의 관계와 조화된 삶의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북과 판소리의 어우러짐을 보게 된다. 판소리의 대가 송만갑이라는 실제 명인과 북을 치는 자아의 조화된 삶의 거취가 창과 북의 열연에서 나타난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작품의 시작을 대화체로 엮어 소리의 장에 수월하게 돌입하게 된다.<sup>34)</sup> 김영랑의 시는 설명을 배제한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을 하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시이다. 이런 시를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상징적인 효과와 함께 울격이 시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전통적 울격에 변용을 거쳐 표현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엇모리 잣아지다 휘몰아보아.’시작하는 소리에서는 가장 느린 진양조에서 가장 빠른 휘모리 사이에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등의 장단의 변화를 열거하고 있다. 진양조는 애연조(哀然調)이고 중모리는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우면서 우아한 맛이 있으며, 자진모리는 섬세하면서 차분하면서 상쾌하고, 휘모리는 급박감을 준다. 이와같은 소리의 전개와 순차는 삶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갈등과 전환의 계기를 거치는 중에 도달하게 되는 삶의 지평과도 같이 보이고, 생명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린 생명체가 태어나 이 우주 속의 삶을 지속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 속도와 전개 과정이 소리의 전개과정과 같이 탄생의 과정을 거쳐, 삶의 와중에서 겪게 되는 진양조의 애처로운 알림을 시작으로 중모리의 안정감 속에 삶의 중앙에 들어서게 되는 청년기에 중중모리의 흥취 가득한 곡조에 삶의 상승곡선을 올려가고, 자진모리에서의 섬세하고 밝고 차분하며 상쾌한 분위기 속에 여유로운 관조의 세계를 즐기다가, 휘모리의 급박한 변화와 전개를 통하여 생의 이

34) 조동일, op.cit., pp. 155~156.

별과 결별의 전조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창을 하는 친구의 사실 내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시적 화자의 북 장단은 적절하게 어울려 북 치는 나와 창을 하는 너의 호흡이 꼭 맞게 해야 한다. 인생에서 흔치 않은 시원스런 한판 ‘소리’는 인생의 시원스러운 한판의 삶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연창을 하는 친구가 주인공으로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면 북을 치는 내가 이를 주도하고 끌어올려 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인생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과정에는 주객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서로를 이끌어 주고 밀어주며, 다시 호흡을 맞추어 기다렸다가 함께 가고를 이루어냄을 표현하고 있다. 소리 예술은 한 바탕의 삶의 역정을 표현하는 과정과 같아서 소리 한판을 듣고 나면 한 인생의 역정을 보고 깨닫는 과정과 같이 오랫동안 감동의 여운 속에 생각할 수 있는 예술적 여운에 동승하게 된다. 소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장르로서 그 예술적 표현의 가치와 내용의 심오함과 명쾌한 어휘의 운용, 그리고 절절하게 끌어오르는 삶의 격정과 갈등,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원한 해결사의 소리로 인해 감동하고 삶의 정면과 대결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해주는 장르이다.

1연의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소리의 시원은 청유적 삶의 자세로 공동체적 삶의 궤적을 표현한다. 인간의 소리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북소리의 절창은 개인 홀로 이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볼 수 있다. 소리를 하는 친구와 북을 치는 시적 자아의 교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우러져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엇모리 찾아지다 휘몰아 보아.’ 자연의 호흡을 표현하는 가운데 2연에서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론 일이란/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임에 스스로 감동하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숨결이 꼭 맞는 상황에서의 순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연 속의 한 구성물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비전에 눈 뜨게 한다.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헛 때리면 만갑(萬甲)이도 숨을 고쳐 쉴 밖에.’ 소리를 내지 않는 북은 가죽이라는 물질에 지나지 않을 뿐 이다. 그러기에 소리에 맞추지 못하고 북을 헛 때리면 아무리 소리를 잘하는 허만갑 같은 사람도 다시 숨을 고쳐서 쉬고 호흡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소리와 북의 소리가 절묘하게 호흡이 맞아 올려주는 과정에서 민족의 숨결은 조화된 생명체를 탄생케 할 수 있는 것이다. 5연의 ‘장단(長短)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연창(演唱)을 살리는 반주(伴奏)쯤은 지나고/북은 오히려 컨다타--요.’에서 일상적인 의미의 생성에 섬세한 시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리의 길고 짧음을 표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창하는 과정에 반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북소리는 오히려 소리를 이끌어 가고 소리의 비전을 향하여 밀어 올려주는 지휘자의 함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적 전환이 중요한 것이다. ‘떠받는 명고(名鼓)인데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이름난 명기일수록 시원하고 명쾌한 소리로써 감동의 여운을 생성케 하는 경우를 보게 되니, 인간도 소리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잔 가지를 다 떨구어 버린 거송 다운 몸짓과 마음으로 그 여운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떡 궁! 동중정(動中靜)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6연의 잔가락을 온통 잊는 무아지경의 북소리는 삶의 잔 가지를 다 떨구어 내고 우뚝 선 거송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는 무아지경의 경지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 북소리에 감겨오는 특유의 장단소리는 울림 상태로써 삶의 노정을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소

관하고 걱정적인 삶과 소리 속에도 고요함과 차분한 삶과 소리가 있으니 동중정(動中靜), 소리의 소란함과 고요 속에서 소리의 있음과 없음의 경계, 인생에 음미하고 비유하여 표현하는 시적 전환은 영랑 고유의 절창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시적 리듬은 시대를 표징하고 그 리듬의 여운은 사회 속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리듬은 개인의 삶에 개체적 정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 리듬은 사회에서, 또 삶의 근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35)</sup>

“구술성이 있는 시는 낭송하는 말소리보다 노래의 가락을 중시한다”고 한 아일랜드인으로서 한국의 고시조를 30여년 영어로 번역해온 케빈 오록이 문학사상, 1999년 1월호에서 한국시의 전통찾기 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의 전통 속에서 음악적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본인의 모국인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성정과 관점으로 보아 한국의 현대시어에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소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비평과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시의 운율과 리듬의 역할은 삶의 리듬과 생명의 생성을 독려하는 예술적 표현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현대인의 삶에 대한 리듬과 조화는 소박한 대화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시대의 문명의 와중에서도 사람다운 향기와 대화를 원구함에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화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부모형제에 대한 정과 친족에 대한 막연한 정의 흐름은 향수어린 소리와 고향의 향기를 통하여 세삼 인간의 본연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한다. 시간과 공간이 여의한 곳을 궁구하게 됨에 인간의 정서가 어우러져 있는 자연의 소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어 들려주는 해조의 소리는 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 속에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한다. 넓은 들에서 얼룩백이 황소들이 서로를 부르던 느린 박자의 울림소리는 넓은 들판을 맴돌게 하여 그 공명의 소리는 전원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여유를 충족시켜 주는 소리의 향연으로 우리를 다가서게 하고 있다.

## 5. 고향의 소리,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뷘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35) 김우창, op.cit., pp.223~224.

36) 케빈 오록, 한국시의 전통 찾기, 문학사상, 1999, 1월호, p. 258.

최동호,, p.66에서 재인용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리  
풀섶 이슬에 함추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傳設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정지용의「향수」

지용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소리에서 옛이야기를 듣고 있다. 만해가「알 수 없어요」에서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라고 하여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바라보고 있는 시적 자아의 氣概를 운율과 소리의 조화 속에 노래한 것과 같이, 지용의 「향수」에서는 실개천이 그 근원과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넓은 벌판의 동쪽 끝으로 휘돌아 나가는 소리 가운데 옛 이야기를 연상하게 해주는 ‘시냇물 이 흘러가는 소리’와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소리가 어우러져 자연 속의 경관을 풍요롭게 비춰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뽕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수확이 끝난 후의 텅 빈 밭에는 밤바람이 말을 달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마음껏 불고 있고, ‘傳設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누이에게서 전설 속의 바다에서 춤추는 밤물결 같은 소리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바다에서 밤물결 소리를 듣게 하는 시적 자아는 보이지 않는 힘과 역동적인 힘과 젊음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다. 傳設이 난무하는 바다에서 춤추는 밤물결은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전설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에서는 소박한 자연 속의 삶을 그리고 그 위를 서리 까마귀가 우지짖고 날아가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정경을 보여준다. 서리 까마귀의 우짖는 소리와 초라한 지붕의 조화는 공감각적 효과 속에서 예술적 감흥을 높여주고 있는

데.그 지붕 아래에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으로 전원의 향토적인 지붕 아래 흐릿한 등불 아래 둥글게 돌아앉아서 담소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흐린 불빛 아래서 ’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 지칭하여 끊임없는 대화의 장이 지속되는 곳으로서, 꿈을 나눌 수 있는 정경으로서 시적 공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적 공간의 표출은 시적 자아의 외적 경험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냇물 이 흘러가는 소리,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소리, 텅 빈 밭에는 밤바람이 말을 달리는 듯한 소리, 전설 속의 바다에서 춤추는 밤물결 같은 소리, 서리 까마귀가 우지짓고 날아가는 소리, 흐릿한 등불 아래 둥글게 돌아앉아서 담소하는 소리, 도란도란 거리는 소리 등은 지용의 향수에서 오는 경험적 자아의 노래가 오랫동안 시적 읊조림으로 전승되는 연유라 할 수 있다. 소리의 힘은 시적 울림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고, 그 여운 속에 삶의 활기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6. 신비의 소리, 미당 서정주

세상일 고단해서 지칠 때마다,  
 댕잎으로 말아 부는 피리 소리로  
 옛되고도 싱싱히는 나를 부르는  
 질마재. 질마재. 고향 질마재.

소나무에 바람소리 바로 그대로

서정주, 「질마재의 노래」에서

「질마재의 노래」의 초반부이다. 온 지구를 “댕잎으로 말아 부는 피리 소리”로 모든 고통과 질병, 고난을 없이하고 “소나무에 바람소리 바로 그대로”의 신화적 원형의 세계를 꿈꾸는 시적 자아에게 피리 소리는 나를 잊고 원형의 소리에 심취하여 태초의 모습 그대로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하는 소리의 혼에 의하여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질마재라는 고향에서 가능한 것이다. 질마재는 디지털 문화의 흐름 속에 고갈될 수 있는 현대인들의 관념과 정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소리가 생성되는 태초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일 고단해서 지칠 때마다,’ 자아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소리는 ‘댕잎으로 말아 부는 피리 소리로/ 옛되고도 싱싱히는 나를 부르는’ 소리로 그 안에는 ‘소나무에 바람소리 바로 그대로’ 생명력으로 다가와 옛되고도 싱싱한 소리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피리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소나무의 청정한 모습과 그를 에워싸는 바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삶의 과정을 곧 만파식적과 같은 풍류의 소리, 신화의 소리로 전환시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화적 원형의 소리는 그와 결맞는 빛을 흠모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그 정점으로 삼고 활기있게 살아가

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다.

풍류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영상은 바람을 일으켜 기상에 변화를 주며 물의 흐름처럼 기맥을 전달하여 순환의 질서를 일으킨다고 한다. 개인의 본성과 심기의 생성과 소멸도 그에 따른다고 한다. 그리하여 삶의 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열린 몸과 마음, 혼의 전달이 필수적으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풍류의 길은 생태학적 지혜와 환경의 개선과 변화가 어우러지면서도 정갈한 곳,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꽃이 피고 웃음이 있는 곳, 소박한 도라지꽃, 칩넌출이 어우러지는 곳, 솔바람에 우리의 혼도 포개어 볼 수 있는 곳, 즉 미당의 질마재에 설정된 고향과 같은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에게 고향의 대명사로서 익숙해진 질마재는 신화속의 원형으로 “세상일 고단해서 지칠 때마다, 땀으로 말아 부는 피리소리로” 삶의 기를 불러일으키고 신선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곳이다. 소리의 기운이나 소리의 혼이 조화되어 현대인의 삶을 창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고향은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늘의 뜻, 하늘의 빛, 하늘의 소리를 마음속에 담아 단군의 풍류를 생활화해야 하는 지혜를 일깨워 준다. 생명이 깃든 비단 한 필을 받아다가 해 앞에 바쳐놓고 제사지내니 하늘의 빛이 돌아와 준다는 깨달음, 민족의 신앙은 단군 이래로 민족의 힘이 되어 왔다. 빛을 빛낼 만한 자가 빛낼 만한 일을 실천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신비의 힘이며 방위에 대한 바람과 기도의 실현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빛, 생명의 氣, 풍류의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신비의 혼의 원리를 삶의 현장에 환원시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장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 合竹扇의 合竹의 意味도

물론 萬波息笛의

그 文武王과 金庾信의 魂의 合竹의

그 合竹입지요.

무슨 다른 合竹이

이 나라에 어디메에 따로 또 있는가요?

그렇지만, 물론

이 合竹扇이라는 것은

저 萬波息笛의 合竹의 순 후렴으로써

全羅道에 와서는 할랑할랑

손으로 들고 부쳐서

저 檀君의 風流의 바람을 갖다가

잘 일으켜야만 할 것이 되어 있었을지요.



서정주, 「전주 합죽선이 생겨난 이야기」에서

만파식적과 합죽의 조화를 노래한 「전주 합죽선이 생겨난 이야기」에서 하늘의 소리와 ‘할랑할랑’ 불고있는 바람의 소리의 공감각적 표현으로 시적 흥취를 돋구어 주고 있다. ‘그 습죽의 습죽의 意味도 /물론 萬波息笛의/그 文武王과 金庾信의 魂의 습죽의/그 습죽입지요.’ 만파식적의 소리,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혼의 힘이 합해져 만들어진 소리, 습죽의 소리는 단군의 풍류 바람에 일으켜지는 소리를 기억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 속에 녹아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인류의 행복을 “단군의 풍류의 바람을 갖다가 잘 일으켜” 이루어야 함을 깨우쳐 준다.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건국이념, 삶의 현장을 보다 지혜롭고 싱싱한 생명력 속에서 거듭나게 하고, 흥익인간화 했던 단군의 風流시대를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하는 시대의 경관을 직시하게 하는 시대. 풍류의 신비한 경지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7).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늘의 소리와 바람소리를 기억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개개인 스스로 “할랑할랑/손으로 들고 부쳐서 /저 檀君의 風流의 바람을 갖다가/잘 일으켜야만 ” 되는 것임을 알고 할랑할랑 부채를 부쳐서 일으키는 시적 행위는 신화적 반복에 의한 것이다. 단군신화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로 연명하며 굴 속에서 어둠을 이겨내고 밝은 세계로 나와 ‘사람이 된’ 신화적 행위를 담고 있다. 쓴 맛과 매운 맛을 어둠의 세계에서 이겨내고 굴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사람은 하늘의 뜻을 담은 환한 세계에서 환웅과 결혼하여 檀君의 風流의 바람을 일으켜 준 것이다.38) 밝은 우주로 향하여 부는 “풍류의 바람”은 바람소리의 혼을 진작시켜 사람과 우주와의 혼용관계를 맺는 가운데 사람이 되기 위한 신화적 시간을 돌이켜 보게 하는 신화적 소리라 할 수 있다. 시인 개인의 부채에서 일으켜진 바람은 우리 시대와 사회를 풍류의 풍요로움과 화해의 시선으로 통괄하여 신화적 삶의 신비를 터득하고 실천하게 한다.

37) 푸코와 한국문화 연구의 접근

신라시대에의 불교사상은 유교와 도가사상, 그리고 風流思想과 좋은 이웃으로 작용하여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불교사상은 三國時代, 특히 신라시대만큼 그렇게 유가사상과 다른 雜家思想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와 불교사상은 완전히 대립적인 배척관계로 변하고 만다. 儒家의 佛家에 대한 배척 뿐만 아니고, 雜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38)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97, pp.48~50.

소리가 같으면 같은 뜻으로 해석, 청각의 여러 통로, 고막에서 와우관, 뇌의 내측슬상체, 그리고 측두부의 청각중추까지 같은 신경섬유를 통하여 지나가므로 일단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가 2차적으로 대뇌피질에서 그 의미를 구분, 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는 당연한 일, 하늘의 뜻을 담은 환한 세계에서 하늘의 아들, 환웅과 결혼한 신화의 낭만성은 사람이 되어 하늘의 뜻대로 살고자 한 민족의 염원으로 볼 수 있다.

## 7.소리의 혼과 시적 전환, 황동규

서양물 설먹은 자답게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를  
차에 모시고 다니며 듣는다.  
소리의 혼이 베토벤 귀의 가로등을 모두 끄고  
자신의 내장(內臟)하고만 대화를 나누게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엿듣고 있을 때,  
소리의 혼이 언뜻 봐줘  
급히 옆으로 파고드는 차를  
아슬아슬 피하게 하는구나.

...

오늘은 음악과 소음 모두와 헤어져 강원도 산골에 왔다.  
베토벤도 브람스도 카세트에 잠재우고 왔다.  
마당이 살아있다.  
눈 위에 눈 술술 뿌리는 바람 소리,  
전나무 가지에 눈송이들이 쌓여  
기다리다 기다리다 눈 꼭 감고 뛰어내리는 소리.  
흰눈 흠뻑 쓰고 있던 나무가  
끝내 자해(自害)하는 따악 소리.  
방의 전기가 나간다.  
전선이 땅 위에 쓰러져 내는 신음.  
마루문을 열면  
하늘이 인간의 크기에 맞게 낮춰져 있다.

두 귀 모두 마루에 내어놓고  
지구가 하루쯤 궤도 벗어나 멋대로 놀다 오길 기다린다.  
가만, 지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의 목소리!

황동규, 「소리의 혼- 강원도 산길에서, 마종기에게」에서

극적 전개와 같은 시적 정경을 접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시인 황동규의 크기에 맞게 낮춰져 다가오는 하늘을 함께 우러러 본다. 그 전에 소리의 혼은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좌충우돌 만남이 엿갈려 전개된다. 그러나 정갈한 만남을 기원

하는 중에 ‘자신의 내장(內臟)하고만 대화를 나누게 할 때,/내가 그 얘기를 엿듣고 있을 때,/소리의 혼이 언뜻 봐줘/급히 옆으로 파고드는 차를 /아슬아슬 피하게 하는구나.’ 시적 예감은 실생활에서도 내적 대화를 통하여 체득하게 되는 소리의 신비함과 그 가능성을 깨닫는다. 소리의 혼의 영험함은 일상을 초월하여 삶을 통제하고, 자연적인 생명의 질서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즉 살아있는 자연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소리의 혼은 어디에 있는가? ‘마당이 살아있다./눈 위에 눈 솔솔 뿌리는 바람 소리,/전나무 가지에 눈송이들이 쌓여/기다리다 기다리다 눈 꼭 감고 뛰어내리는 소리./흰눈 흠뻑 쓰고 있던 나무가/끝내 자해(自害)하는 따약 소리.’에서 눈 위에 또 눈이 내리는 중에 들려오는 바람소리의 포근함, 쌓인 눈송이들이 전나무 가지위에서 뛰어내리는 소리도 듣고, 흰 눈을 흠뻑 쓰고 있던 나무가 끝내 지탱할 힘을 잃고 부러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방의 전기가 나간다./전선이 땅 위에 쓰러져 내는 신음./마루문을 열면/하늘이 인간의 크기에 맞게 낮춰져 있다.’빛이 나간 산중에서 적막한 가운데 “우웅”하는 소리가 온누리를 휩싼다. 이 소리를 전선이 지구를 품에 안았던 후유증으로 지구가 토해내는 신음소리로 알아듣고, 연민으로 가득차 안쓰러운 마음에 마루문을 열고 보니 하늘은 인간에게 다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자세로 아주 가까이 친밀한 얼굴로 마주하고 있다 ‘두 귀 모두 마루에 내어놓고/지구가 하루쯤 궤도 벗어나 몇대로 놀다 오길 기다린다.’에서 ‘소리의 혼’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아는 마루에 가까운 하늘의 크기에 맞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부유하던 중 다시 돌아와 산책하게 되는 우주적 삶의 궤도에서 소리를 듣게 된다. ‘가만, 지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너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극적 전환으로 지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평을 열고 지구의 목소리가 바로 너의 목소리인 것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의 목소리는 곧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벗의 목소리이며, 곧 너와 나의 대화에서 들던 너의 일상의 목소리이며 단군 시대의 신화적 소리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극서정시의 완성은 가히 성공적이다. ‘지구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의 경지를 터득한 시적 혼과 함께 그 시적 여운은 일상 중에 읊조리게 되는 음률을 타고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한다.

황동규의 극서정시의 특징은 시적 전거에서 극적 전환 중에 밝혀지는 깨달음의 지평에 동참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초반부에 소리의 혼은 일상적 삶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서양물 설먹은 자답게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를/차에 모시고 다니며 듣는다.” 그러나 전환의 계기로 대화의 길을 바꾸어 소리의 선택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의 혼이 언뜻 봐줘/급히 옆으로 파고드는 차를 /아슬아슬 피하게 하는구나.’라고 하여 소리의 혼의 가능성과 그 범위까지 타진하고 그 신비한 체험의 장을 표현하고 있다. 극서정시의 시적 전개에서는 일상적으로 탐색하며 추구하는 와중에 자연과의 대화를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깨달음의 경지를 볼 수 있다. 너무 많이 쌓여있는 눈송이들이 뛰어내리는 정경은 황동규가 자주 표현하는 시적 이미지로서 삶의

여유와 멋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만능의 시대에, 황금만능의 시대에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의 寶庫를 ‘소리의 영혼’의 힘으로 집중하게 한다., 삶의 여유는 겸허함과 비위놓음의 정수임을 표현하고, 결국 너무도 많은 무게를 지탱하다 부러지는 소리를 “따악” 하는 소리의 전환으로 집중하게 한다. 소리는 우리의 뇌에 전달하는 기호로써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비슷한 소리라도 가려서 쓰고, 소리가 비슷한 의미를 원용하여 긍정적인 삶의 과정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지혜를 일상에 실천하였다. 그런데 ‘흰 눈 흠뻑 쓰고 있던 나무가/ 끝내 자해(自害)하는 따악 소리./ 방의 전기가 나간다.’로 소리와 함께 빛이 나가버린 산중의 정경으로 시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적 전환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법에 있어 탁월한 극서정시는 내적 경험을 표현하는 시간의 흐름과 성숙되어 가는 자아의 구현과정을 순조롭게 보여준다. 마음을 비우고, 물욕에서 벗어나, 세속의 혼탁함을 청화의 경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은 천지간에 주인공으로서 그가 창조하는 소리는 온누리를 휩싸 안으며 그 생명력을 분출한다. 단군시대 이래로 인간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늘을 대함에 하늘의 존재는 나 자신에게 스며있음을 알게 되고, 모든 감각을 관조적인 여유와 청화의 기운으로 세척하여 사유하다 보면 ‘가만, 지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의 목소리!’로 소리의 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다. 항상 가까이 있는 자아의 우정어린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지구의 소리임을 깨닫게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IV. 마치며

소리의 혼을 구가하는 시적 자아는 그 전통적 맥락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본고리를 정리하면서 체득하게 되었다. 단군신화 이후로 굴속의 곰이 어둠과 절제를 이겨내고 사람이 되는 신비의 과정이 상징하는 바를 숙고해 보았다. 사람이 된 후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환한 빛과 합쳐져 단군의 새벽을 열어주신 신화적 원형을 성찰하며 우주와 인간의 합일로 신화적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혼의 구현을 표현하고 있는 시대의 절창을 정리하여 회자(膾炙)의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물이 사람이 되기 위해 보여준 의지의 실현은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는 시적 전환의 경지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지평에 도달하게 되는 신화성에 함축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소리의 혼은 운율과 리듬을 타고 일상생활 중에 밝은 생명력으로 발현된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내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의미의 발현까지 예민한 주의를 기울이며 단어를 갈무리하여 썼던 조상들의 감각은 고래로 전승되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특히 음악적 요소와 문학적 상념을 고취시켜 삶의 활력소를 분출하게 하는 표현은 디지털시대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시적 여유으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현대시사에서 전통과 변용에 의한 운율과 리듬

을 타고 소리의 혼을 담은 표현은 일상인들에게 울림의 형태로 회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할 것임을 정리하였다. 혼의 집중으로 소멸과 고독의 상황을 화합과 생성의 지평으로 승화시킨 김소월의 소리, 생명의 신비함과 오묘한 우주의 신비를 깊은 시적 상념 속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노래한 만해 한용운, 성찰과 에토스의 구현에서 창밖의 빗소리, 잎새에 스치는 바람소리와도 대화하는 운동주, 소리와 북의 예술을 접목시켜 삶의 해조(諧調)를 노래하게 하는 김영랑, 한국인의 영원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는 고향의 소리를 읊조리게 해준 정지용, 신화적 신비와 풍류의 신화를 진작시켜주는 피리소리, 만파식적의 소리, 함축선이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들려주는 미당 서정주, 소리의 혼을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극서정시를 통하여 공감하고 일상 중에 읊조리게 하는 시적 전환의 명인 황동규의 작품 등을 분석, 고찰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 하늘과 땅에 어울릴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영혼을 가진 인간 존재 ”의 역할을 중시하여 사람이 되고자 염원했던 민족의 혼을 소리의 혼으로 불러 일으켜 전통적인 운율과 리듬 속에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일상적 삶을 새롭게 생성하게 하며, 새로운 리듬 속에 삶의 활력소를 불러일으켜 주는 환웅의 소리, 쑥의 쓴 맛과 마늘의 매운 맛, 그리고 어둠의 연장선을 이겨내고 밝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결혼의 지평에 오른 시조(始祖)의 낭만적 혼을 체득하고 읊조리게 하는 표현의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는 소리의 혼을 표현의 미학에 접목시킨 작품을 통하여 현대시사의 방향과 그 문학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의 초석으로 그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지속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국, “울곡의 문학관”,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月印, 2000,  
김열규, 신동욱 편,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김우창, 시의 리듬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 1999, 봄호  
김지하, 『미학사상』, 김지하전집3권, 실천문학사, 2002.  
김학동, 한국근대시인연구, 일조각, 1974.  
이정호, 정역(正易), 일조각, 1982.  
정약용저,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1998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97.  
최동호, 디지털문화와 생태시학, 문학동네, 2000,  
Cassirer, Ernst,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tr. by Myung Kwan Choi, 인간이란 무엇인가, 展望, 17, 1979,  
James Guetti, *Word—Music*,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80,  
Langer, Susanne K. *Problems of Arts—Feeling and Form, What is art*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93,